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조 미 정¹⁾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 주 연²⁾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남녀 659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 자기조절력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자기조절력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신체화증상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신체화증상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와의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신체화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는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상담현장에서는 각각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부모의 양육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양육행동, 자기조절력, 정서행동문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조미정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의 일부임.

1)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E-mail: idscot@j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라는 구조화된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서와 행동 문제를 다양하게 드러내게 된다. 박진우, 허민숙(2021)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7만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학습상황과 또래 관계에 집중되면서 아동이 지닌 정서행동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기 정서행동문제는 또래, 학업 문제로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이르러 품행이나 비행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Patterson, DeBaryshe, & Ramesy, 1989). 따라서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 및 적응을 고려해보면,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출생 초기부터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기는 본격적

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이므로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과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가는 학령기 이후의 발달과 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은경, 한세영, 2016; 조윤미, 이숙,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혜련(2003)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정문자, 김문정, 2004; Roelofs, Meesters, Ter Huurne, Bamelis, & Muris, 2006), 제재적(정문자, 김문정, 2004)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 어머니가 통제적일수록(곽소현, 김순옥, 2006; 이경남, 2004), 거부적이고 제재를 많이 할수록(백종화, 2009) 아동의 비행성향과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허용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이의빈, 2021; 정문자, 김문정, 2004), 방임할 때 아동은 신체증상과 위축 행동을 보이며, 주의집중 문제도 나타남이 보고되었다(길혜지, 황정원, 2017).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아동의 자기조절력도 정서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강선애, 2018). 아동들은 출생 이후 다양한 관계에서 내외적 통제에 의해 내면화되는 규칙을 습득하고, 목표를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키워간다. 이러한 발달과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자기조절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정서행동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동적, 과잉행동을 보이는 행동장애나 공격적행동, 학습장애와 같은 다양한 아동기 적응에 따른 문제행동은 자기조절력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김은숙, 2008).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이영임, 정형수, 정미나, 양은주, 2009)와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측한다는 연구(김호정, 2002)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 각각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또래관계형성과 관련이 있고(최윤실, 박용임, 2015), 주의산만과 과잉행동(정혜진, 2009; 최효숙, 2013), 공격성 표출(노덕효, 이숙, 2010)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정서표현과도 연관이 있다(성형석, 한상린, 2010; 최효숙, 2013).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동의 낮은 자기조절력은 또래관계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행동문제와도 연결된다.

한편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는 자기조절력은 앞서 살펴보았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이 자라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며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

지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안미경, 1996; Kochanska, Aksan, & Koenig, 1995; Silverman & Ragusa, 1992). 그러나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신체적으로 개입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행동은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이경남, 2001; Crockenberg & Litman, 1990). 또한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떨어진다고(전은정, 2014).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을 높이지만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환경특성에 해당하는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관계를 하나의 연구에서 다룬 경우는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 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본격적으로 학교와 학습에 적응해가면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더욱 자극적으로 지각한다. 이들은 학업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지만,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부족하여(Miller & Summers, 2001) 많은 부정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구은주(2019)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 간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정윤과 최수미(2011)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Wong, 2008)에서 어머니의 관여나 지지는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 관련되기도 하고, 자기조절력을 매개하여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변인의 측정대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조봉환과 임경희(2003)는 주의산만이나 과잉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는 어머니나 교사의 주의를 끌어 관찰과 측정의 대상이 되지만, 아동이 스스로 겪고 있는 또래들 간의 문제나 정서조절, 신체증상,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측정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고려원, 박중규, 오경자, 1997; 류문화, 서경희, 1999)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대부분 어머니나 교사와 같이 오랫동안 아동을 관찰해온 성인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를 통해 외현적, 정서적, 관계적 행동 문제를 보다 면밀히 측정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강지현, 2014; 이주리, 2008; 좌현숙, 오승환, 2011)는 점에서도 본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변인으로 보거나, 내재화나 외현화 변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 각각의 하위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하위구성개념과 방향성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차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내담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유형이 발전해 온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이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면, 현장에 있는 임상가들이 상담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 및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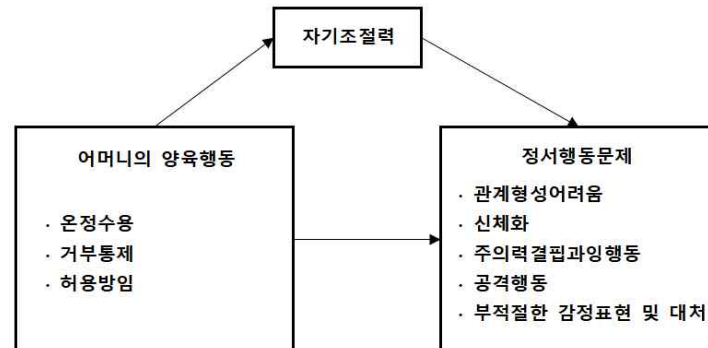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모형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1.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6개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소아치과병원, 학원, 교회 등에 방문한 아동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표집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총 6개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어머니와 아동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30부를 수거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 5부를 제외한 325부를 분석에 포함했다. 온라인 표집은 광주, 전남 소재 소아치과병원, 학원, 교회 등에 방문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과 어머니 총 500여 명 중 동의한 사람에게 한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부하였고, 총 351명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와 동의서에 표시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하고 총 334부를 분석에 포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325부와 온라인 334부를 합쳐 총 659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4학년 38.1%, 5학년 26.7%, 6학년 34.6%이며, 성별 분포는 남자 43.3%, 여자 56.0%로 나타났다. 형제 수로는 외동이 47.2%로 가장 많았고, 자신을 제외하고 형제가 1명 37.8%, 2명 12.3%, 3명 이상 2.0%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관계형성 어려움 9문항, 신체화 9문항, 주의력결핍과잉행동 8문항, 공격행동 6문항,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개발자가 명명한 하위요인명을 자세히 살핀 결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요인이 감정표현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절한 대처 행동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문항들이 하위변인명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로 변인명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척도개발자의 타당화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봉환, 임경희(2003)가 보고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1이었고, 관계형성어려움 .83, 신체화 .81, 주의력결핍과잉행동 .78, 공격행동 .76,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6이며, 관계형성어려움 .89, 신체화 .86, 주의력결핍과잉행동 .87, 공격행동 .85,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8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

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 거부통제, 허용방임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80문항으로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많고 응답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문자와 김문정(2004)이 30문항 간략형으로 재구성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재구성 방법은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허용방임은 최초 문항수가 적어 .30 이상을 기준으로 함)을 기준으로 하였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10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30문항을 추출하였다.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정문자와 김문정(2004)이 보고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고,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76 ~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 Cronbach's α 는 .94였고, 온정수용이 .89, 거부통제가 .90, 허용방임이 .91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단비, 김경성(2015)의 초등학생용 자기조절력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18번 ~ 23번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고(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단비, 김경성(2015)이 보고한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량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Pearson 상관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VIF 계수,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4를 적용하였고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Model 4에 의한 분석결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1단계 모델로 제시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 p 값과 LLCL과 ULCL의 신뢰구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개효과와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를 통해 검증되는데, 신뢰구간 LLCL과 ULCL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배병렬, 2018).

III. 결과 및 해석

1. 상관분석

연구변인의 평균은 1.80 ~ 3.34의 범위에 있었고, 표준편차는 0.48 ~ 0.84의 범위에 있었다. 정규성 가정을 위한 왜도는 -.06 ~ .79

로 나타났고, 첨도는 -.80 ~ .34으로 전체 연구변인은 정규성 가정에 충족되는 값을 보였다. 이는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nch & West, 1997).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들과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가 .50 ~ .85이었고, VIF 계수는 1.18 ~ 2.0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조건인 공차한계 0.1 이하를 벗어났고, VIF 계수도 4 ~ 5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Hocking & Pendleton, 1982). 또한 Durbin-Watson 지수는 2에 가까울수록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1.73 ~ 1.91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관계형성어려움($r = -.42, p < .001$), 신체화($r = -.34, p < .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r = -.39, p < .001$), 공격행동($r = -.39, p < .001$),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r = -.42, p < .001$) 모두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관계형성어려움($r = .51, p < .001$), 신체화($r = .47, p < .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r = .54, p < .001$), 공격행동($r = .58, p < .001$),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r = .61, p < .001$) 모두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도 관계형성어려움($r = .51, p < .001$), 신체화($r = .48, p < .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r = .45, p < .001$), 공격행동($r = .52, p < .001$), 부적

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r = .65, p < .001$) 모두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r = .36, p < .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거부통제($r = -.25, p < .001$)와 허용방임($r = -.18, p < .001$)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관계형성어려움($r = -.28, p < .001$), 신체화($r = -.15, p < .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r = -.33, p < .001$), 공격행동($r = -.28, p < .001$),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r = -.23, p < .001$)와 모두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관계형성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단계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beta = .3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beta = -.36,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15,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 중 1단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beta = .3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아동의 신체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 = -.33,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1단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beta = .37,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beta = -.31,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31,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1단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beta = .3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beta = -.32, p < .001$) 자기조절력($\beta =$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검증 ($N = 659$)

모델	변인		β	<i>se</i>	<i>t</i>	신뢰구간	
	예측	종속				LLCL	ULCL
1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36	.13	9.59***	.97	1.47
2	어머니의 온정수용	→ 관계형성어려움	-.36	.06	-9.29***	-.64	-.42
	아동의 자기조절력	→	-.15	.02	-3.14***	-.10	-.03
1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36	.13	9.59***	.97	1.47
2	어머니의 온정수용	→ 신체화	-.33	.06	-7.94***	-.61	-.37
	아동의 자기조절력	→	-.03	.02	-.72	-.05	.02
1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37	.13	9.75***	.98	1.48
2	어머니의 온정수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31	.05	-7.99***	-.54	-.33
	아동의 자기조절력	→	-.31	.02	-5.45***	-.12	-.06
1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36	.13	9.56***	.97	1.47
2	어머니의 온정수용	→ 공격행동	-.32	.04	-8.11***	-.42	-.26
	아동의 자기조절력	→	-.16	.01	-3.90***	-.07	-.02
1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35	.13	8.80***	.90	1.43
2	어머니의 온정수용	→ 부적절한 감정표현	-.40	.05	-10.00***	-.64	-.43
	아동의 자기조절력	→ 및 대처	-.07	.02	-1.81	-.06	.00

*** $p < .001$.

-.16,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서 1단계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beta = .3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beta = -.40$, $p < .001$)은 통

표 2.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N = 659$)

변인	효과계수	Boot <i>se</i>	신뢰구간	
			LLCL	ULCL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 관계형성어려움	-.05	.02	-.08	-.02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08	.02	-.12	-.05
어머니의 온정수용 → 자기조절력 → 공격행동	-.06	.02	-.09	-.02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에 대해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관계형성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단계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beta = -.2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관계형성어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통제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검증 ($N = 659$)

모델	변인		β	s.e	t	신뢰구간	
	예측	종속				LLCL	ULCL
1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25	.10	-6.35***	-.85	-.45
2	어머니의 거부통제	→ 관계형성어려움	.47	.04	13.31***	.45	.61
	아동의 자기조절력	→	-.15	.02	-4.13***	-.09	-.03
1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25	.10	-6.35***	-.85	-.45
2	어머니의 거부통제	→ 신체화	.47	.04	12.70***	.45	.62
	아동의 자기조절력	→	-.03	.02	-.67	-.04	.02
1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26	.10	-6.53***	-.86	-.46
2	어머니의 거부통제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48	.04	13.96***	.44	.59
	아동의 자기조절력	→	-.21	.01	-5.91***	-.11	-.06
1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25	.10	-6.40***	-.85	-.45
2	어머니의 거부통제	→ 공격행동	.55	.03	16.23***	.39	.50
	아동의 자기조절력	→	-.14	.01	-4.01***	-.06	-.02
1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25	.10	-5.93***	-.84	-.42
2	어머니의 거부통제	→ 부적절한 감정표현	.62	.03	18.45***	.56	.70
	아동의 자기조절력	→ 및 대처	-.06	.01	-1.77	-.05	.00

*** $p < .001$.

적 양육행동과($\beta = .47,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15,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 중,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2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신체화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 = .47,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beta = -.2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beta = .48,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21,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행동 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beta = -.2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beta = .55,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14, p <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beta = -.2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beta = .62,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에 대해 95% 신뢰

표 4.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N = 659)

변인	효과계수	Boot se	신뢰구간	
			LLCL	ULCL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 관계형성어려움	.04	.01	.02	.06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05	.01	.03	.08
어머니의 거부통제 → 자기조절력 → 공격행동	.03	.01	.01	.06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관계형성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1단계를 살펴본 결과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beta = -.18, p < .001$)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관계형성어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beta = .46, p < .001$)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기조절력($\beta = -.19,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1단계로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beta = -.1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신체화를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검증 ($N = 659$)

모델	변인		β	s.e	t	신뢰구간	
	예측	종속				LLCL	ULCL
1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18	.11	-4.54***	-.70	-.28
2	어머니의 허용방임	→ 관계형성어려움	.46	.04	13.01***	.45	.61
	아동의 자기조절력	→	-.19	.02	-5.54***	-.11	-.05
1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18	.11	-4.54***	-.70	-.28
2	어머니의 허용방임	→ 신체화	.46	.04	12.62***	.45	.61
	아동의 자기조절력	→	-.06	.02	-1.71	-.06	.00
1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18	.11	-4.58***	-.69	-.28
2	어머니의 허용방임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41	.04	11.44***	.37	.52
	아동의 자기조절력	→	-.25	.01	-7.15***	-.13	-.08
1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18	.11	-4.63***	-.70	-.28
2	어머니의 허용방임	→ 공격행동	.48	.03	14.02***	.35	.46
	아동의 자기조절력	→	-.18	.01	-5.31***	-.08	-.04
1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20	.11	-4.86***	-.75	-.32
2	어머니의 허용방임	→ 부적절한 감정표현	.62	.03	19.96***	.59	.72
	아동의 자기조절력	→ 및 대처	-.12	.01	-3.72***	-.07	-.02

*** $p < .001$.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 = .46,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beta = -.1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과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beta = .41,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19,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beta = -.1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beta = .48,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β

$= -.18, p <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통해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beta = -.20,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beta = .62,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력($\beta = -.12, p <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 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에 대해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기조절력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65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표 6.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N = 659$)

변인	효과계수	Boot s.e	신뢰구간	
			LLCL	ULCL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 관계형성어려움	.04	.01	.02	.05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 주의력결핍과잉행동	.05	.01	.02	.07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 공격행동	.03	.01	.02	.06
어머니의 허용방임 → 자기조절력 →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02	.01	.01	.04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과 신체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들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이면서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과 정적 관련이 있고(임연정, 진미경(2015), 공격성을 낮춘다는 연구(손지영, 김현철, 2004),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화증상 문제를 감소시키고(김은영, 2016), 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며(김숙령, 이선희, 2006),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하도록 이끄는 데 중요한 모델링이 된다고 강조한 최미숙의 연구(2019)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임연정, 진미경, 2015), 신체화증상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차지량, 유미숙, 2010),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높이며(김숙령, 이선희 2006). 공격행동과도 관련있다(손지영, 김현철, 2004; Eron, 1982; Olweus, 1980)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친밀성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

한 연구(최은경, 2009)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일수록 아동이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고(임연정, 진미경, 2015),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관련이 있으며(김숙령, 이선희, 2006), 자녀의 공격성을 일으킨다고 한 연구들(김영애, 2008; 장영애, 이영자, 2012)과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방치나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이 신체화증상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보고한 연구(신현균, 2002)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부모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교나 지역사회기관에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부모가 교육을 통해 익힌 것을 체화시켜 양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정적상관을 이루고,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높인다는 연구(전은정, 2014; 정수지, 최나야, 2020)와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조혜민, 2021),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전은정, 2014),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시/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덜 보일수록 자기조절력은 높아진다는 연구(채현숙, 2018)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므로 부모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양육기술을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자기조절력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력은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과 신체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더 긍정적이고(최윤실, 박응임, 2015), 공격성을 감소시키며(노덕효, 이숙, 2010; 전형희, 안권순, 2020), 낮은 부정적 정서 표출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최효숙,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조절력과 주의집중과 산만한 행동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심진예, 2001; Gottfredson & Hirschi, 1990)와도 일치한다.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과정을 포함하는 상담전략이 필요하겠다.

넷째, 자기조절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인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

나 아동의 신체화증상이나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력을 높여서, 아동의 또래관계형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을 낮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임연정과 진미경의 결과(2015)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기통제력은 높고, 아동의 주의력결핍 경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김현주, 2011)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리고 류성자(2015)가 부모가 수용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높여 공격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심리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김선숙, 2007)와도 상통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 대한 연구결과는 안우리(2013)가 보고한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매개하여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는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그리고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 코칭과 더불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다루는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화증상이나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대처에 대한 상담전략은 자기조절력을 동시에 다루는 위의 방법과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신체화증상이나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대처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통해 얻어진 자기조절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제3의 발달적 자원이나 외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자기조절력은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려 아동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가중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화증상이나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려 또래관계의 질을 낮춘다고 보고한 이임숙, 홍상환의 연구(2015)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나 통제적, 처벌적 양육행동(방은지, 2013),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통제적 양육행동(김성희, 정옥분, 2011)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거부적으로 아동을 양육한 경우,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낮고, ADHD 경향성은 높다고 한 결과(김현주, 2011)와도 유사하다. 공격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Gottman과 Katz의 연구(1989)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냉정하고 무반응적이며, 비밀관적일수록 아동은 조절력이 떨어져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순종적이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아동상담 현장에서는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

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양육코칭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려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므로 상담자들은 아동과의 작업에서는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과정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긍정적 양육기술을 가르치는 것에만 초점화하여 코칭 하기보다 어머니의 심리내적 문제를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원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해서 해소하고, 양육행동의 세대전이를 통찰시키거나, 현재 느끼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상담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기조절력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어려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행동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아동의 신체화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양육행동을 단일변인으로 했거나 부정적, 긍정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특히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독립적인 연구변인으로 보고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이런 양육특성을 포함하여 측정된 부정적 양육행동 연구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논의해 갈 것이다. 먼저 김빛나(2014)는 본 연구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어머니가 비일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은 떨어지고 이는 결국 관계형성 어려움 및 신체화,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공격성,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어려움에 관한 결과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임연정과 진미경의 연구(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입숙(2015)이 보고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했을 때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떨어지고 이는 친구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태도와는 반대로 자녀를 성취적으로 격려하고 지도한 경우 자기조절력을 높여 친구 관계의 질을 높인다고 한 김미성의 연구(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주의력에 대한 매개효과 결과는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를 통해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은실의 연구(2019)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이(신수경, 최경남, 2014; 임애라 2008; 허균, 2013) 자기조절력과 휴대폰 의존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힌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조숙현의 사례연구(2007)에서 결핍된 모성적 돌봄 환경이 보완되고, 부모 양육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동의 자아 기능이 개선되어 결국 주의력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유사한 맥락이다. 공격성에 관한 결과는 자녀

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통제력은 낮아지고 관계적 공격성을 높인다는 성민지의 결과(2020)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남지훈(2017)이 보고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을 낮추어, 결국 관계적 공격성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 관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아동기에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정서를 건강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자기주장을 잘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 Wolfe(1993)의 주장을 지지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해 아동의 모든 정서행동문제 유형들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의해 매개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유일하게 신체화증상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신체화증상은 자기조절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기질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강력한 설명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신체화를 보이는 아동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기보다 지나치게 억압 및 억제하는 특성이 강한데, 이러한 행동 특성이 신체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Larson & Chastain, 1990; Malatesta, Jonas, & Izard, 1987)일 것이다. 또한 신체화증상의 경우는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개인 내적인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신체화는 위에서 설명한 행동문제 유형을 감소시키는 접근과 차별화하여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하위 변인에 초점화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변인간의 차이를 밝힌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Hayes(2013)는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를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0이 아니라는 가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표본크기가 크면 직접효과가 더욱 강한 검정력을 가지게 되어 모두 부분매개를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부터 나온 견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Hayes(2013)의 견해에 따라 매개효과를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로 구분하여 해석하거나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결과를 해석하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들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 간에 자기조절력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후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크기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개효과의 특성을 면밀히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력의 인과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밝힌 점은 단일변인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부정적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하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전략이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애 (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정서행동문제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고려원, 박중규, 오경자 (1997). 주의산만을 주소로 하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6(2), 133-149.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24(6), 95-116.
- 구은주 (2019).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https://doi.org/10.5718/KCEP.2017.11.1.127>
- 김미성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의 질 간의 관계: 자기조절능력

-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빛나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 태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https://doi.org/10.16999/kasws.2007..32.65>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숙령, 이선희 (2006). 가정환경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1-13.
- 김영애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존중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08).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력. 한국유아교육연구, 10, 69-104.
- 김은영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신체화증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457-473.
- 김현주 (2011). 부모양육태도, ADHD 경향성 및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 (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훈 (201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덕효, 이 숙 (2010).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공격성,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1), 85-102.
- 류문화, 서경희 (1999). KISE 정서·행동장애학생 선별척도.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류성자 (2015). 초등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실 (2019). 청소년이 경험한 방임과 학대가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우, 허민숙 (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서울: 국회의원법조사처.
- 박혜련 (2003).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지 (2013). 학령 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능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8). SPSS/Amos/Lisrel/Smart 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청람.

- 백종화 (2009).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민지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에 의해 조절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형석, 한상린 (2010). 고객의 자기조절 성향이 서비스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 귀인과정에 따른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학회, 12(2), 83-110.
- 손지영, 김현철 (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 신수경, 최경남 (2014). 유아의 자아개념 및 자기조절능력과 휴대폰중독 정도 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2(3), 91-111.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증상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171-187.
-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우리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간관계: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2, 43-54.
- 이영임, 정형수, 정미나, 양은주 (2009).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평정 일치도와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95-412.
<https://doi.org/10.16983/KJSP.2009.6.3.395>
- 이은경, 한세영 (2016).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4-195.
- 이의빈 (202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우울,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8(5), 85-114.
<https://doi.org/10.21509/KJYS.2021.05.28.5.85>
- 이임숙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임숙, 홍상환 (2015).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3), 315-336.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심진예 (2001). 전국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실태 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리 (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2), 57-71.
- 임애라 (2008). 친애육구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정, 진미경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8(4), 348-367.
<https://doi.org/10.17641/KAPT.18.4.4>
- 장영애, 이영자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357-373.
<https://doi.org/10.21479/kaft.2012.20.3.357>
- 전은정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아동 놀이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형희, 안권순 (2020).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353-375.
<https://doi.org/10.21509/KJYS.2020.10.27.10.353>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수지, 최나야 (2020). 가족기능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1-12.
<https://doi.org/10.6115/fer.2020.001>
- 정혜진 (2009).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숙현 (2007).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미술치료 사례연구 - Winnicott의 자기개념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 이 숙 (201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0(3), 21-39.
- 조혜민 (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좌현숙, 오승환 (2011). 내재화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147.
- 차지량, 유미숙 (2010). 아동의 신체화증상경험과 부모 및 아동변인. 가정과삶의질연구, 28(2), 193-202.
- 채현숙 (2018).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단비, 김경성 (2015). 초등학교용 자기조절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초등교육, 26(4), 59-81.

- <https://doi.org/10.20972/kjee.26.4.201512.59>
- 최미숙 (2019). 감성코칭 부모양육태도와 정서 표현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7(4), 279-299.
<https://doi.org/10.18230/tjye.2019.27.4.279>
- 최은경 (2009).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실, 박응임 (2015). 부모와의 애착과 자기조절능력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2), 275-286.
<https://doi.org/10.7856/kjcls.2015.26.2.275>
- 최효숙 (2013). 자기조절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대학생활연구*, 19(1), 133-151.
- 허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19(4), 861-879.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https://doi.org/10.1037/0012-1649.26.6.961>
- Eron, L. D. (1982). Parent - 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2), 197-211.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97>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https://doi.org/10.1006/jrpe.1997.2194>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73>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111/jedm.12050>
- Hocking, R. R., & Pendleton, O. J. (1982).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1(5), 497-527.
<https://doi.org/10.1080/03610928308828477>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A. L.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Commit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6), 1752-176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963.x>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https://doi.org/10.1521/jscp.1990.9.4.439>
- Malatesta, C. Z., Jonas, R., & Izard, C. E. (1987). The relation between low facial expressivity

- during emotional arousal and somatic symptom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2), 169-180.
<https://doi.org/10.1111/j.2044-8341.1987.tb02728.x>
- Miller, L. J., & Summers, C. (2001).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nsory integration with diverse populations*. Tucson, AZ: Therapy Skill Builders.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https://doi.org/10.1037/0012-1649.16.6.644>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https://doi.org/10.1037/0003-066X.44.2.329>
- Roelofs, J., Meesters, C., Ter Huurne, M., Bamelis, L., & Muris, P. (2006). On the links between attachment style,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non-clinical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3), 319-332.
<https://doi.org/10.1007/s10826-006-9025-1>
- Silverman, I. W., & Regesa, D. M. (1992).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0(4), 415-435.
<https://doi.org/10.1007/bf00918985>
- Wolfe, D. A. (1993). Child abuse prevention: Blending research and practice. *Child Abuse Review*, 2(3), 153-165.
<https://doi.org/10.1002/car.2380020305>
- Wong, M. M. (2008).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autonomy support: Their relations with self-regulation, academic performance, substance use and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3), 497-518.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8. 30.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Behavior Problems

Cho, Mee Jung

Lee, Ju-Yeon

Dept. of Living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For this purpose, 659 male and female 4th graders of an elementary school were measured for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elf-regulation, and emotional behavior problems. For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MODEL 4 of PROCESS macro. First, self-regulation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arm/accept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difficulty of developing relationship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aggressive behavior', which are subfactors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inappropriate emotional expression and coping' and 'somatization'. Second, self-regulation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ng/restrict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difficulty of developing relationship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aggressive behavior', whereas 'inappropriate emotional expression and coping', and 'somatization' were unaffected. Third, self-regulation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missive/non-interfer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difficulty of developing relationship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ggressive behavior', and 'inappropriate emotional expression and coping'. No effects were shown on 'somatization'. In conclu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differs according to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counseling children and youth.

Keywords: parenting behaviors, self-regulati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mediating effect